◈며느리 권씨 열전 17-2

호랑이를 잡은 함양 열녀, 초계 정씨 정태일의 처 권씨부인

권씨의 함양입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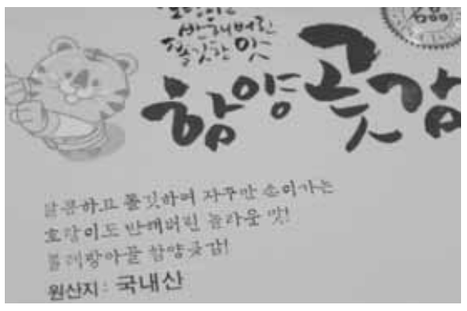
안동권씨의 함양 입향은 다른 성씨에 비하여 다소 늦은 시기에 이뤄졌다. 조선 중종 때 권세경(權世經)이 함양으로 들어와 우항(牛項)[병곡면 도천리 도천마을]에 정착하면서부터이다. 권세경은 부사를 지낸 권우린(權遇麟)의 아들이고, 고은 이지활의 손자인 송계(松溪) 이지번(李之蕃)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선조 때는 직장(直長) 권극의(權克義)[1525~?]가 안음현에서 들어와 그 자손들이 도북(道北)[수동면 도북리 도북마을]에 자리잡았고, 숙종 때는 장령 권유(權愈)[1633~1704]의 후손 권시진(權時進)이 산청에서 들어와 그 자손들이 백천(白川)[함양읍 백천리 일대]에 정착하였다. 영조 때는 권수룡(權壽龍)의 아들 권초(權翹)가 단성(丹城)[지금의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에서 들어와 교동(校洞)[함양읍 교산리 원교마을]에 거주하였고 같은 시기 충강공 권도(權濤)[1575~1644]의 후손 권현(權炫)도 단성에서 들어와 그 자손들이 대광(大廣)[병곡면 광평리 대광마을]에 자리잡았다. 안동권씨의 함양 입향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권도의 후손 우산(愚山) 권병원(權秉元)이 철종 때 단성에서 들어와 난평(蘭坪)[함양읍 난평리]에서 살았고, 고종 때는 상암(霜嵒) 권준(權濬)[1578~?]의 후손 권태환(權泰煥)[1872~1946]과 권재하(權載河)가 단성에서 들어와 그 자손들이 각각 동호(桐湖)[휴천면 남호리 동호마을]와 서주(西洲)[유림면 서주리 서주마을]로 이주하였다. 장령 권유의 후손 권종하(權鍾夏)[1855~?]와 평해군수 권헌문(權憲文)[1885~1953]의 손자 권경용(權敬容)도 고종 때 산청에서 들어와 각각 태관(台官)[휴천면 태관리]과 개평(介坪)[지곡면 개평리 개평마을]에 자리 잡았다. [현황] 1934년에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의 성"에서 함양군의 안동권씨는 수동면 도북리에 60세대 규모의 집성촌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0년의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서 안동김씨 인구는 전국에 19만 6,566가구 62만 9,291명, 함양군은 249가구 653명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의 인구조사에는 전국에 69만 6,317명, 함양군이 610명이었다. 2000년에 비해 안동권씨의 전국 인구는 7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함양군의 인구는 4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군 전체 인구가 2000년 조사에서 4만 1,869명, 2015년 조사에서 3만 7,898명으로 10% 정도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안동권씨 인구의 감소 폭은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안동권씨와 연고가 있었거나 많이 사는 곳은 함양읍 신관리 기동마을, 휴천면 호산리 임호마을, 수동면 도북리 도북마을과 죽산리 내산마을 등지이다.

이상으로 볼 때 입향 기준으로는 추밀공파일 가능성도 높다. 현재 위 입향인들의 족보상 검색에서 누락 되어 보이니 권씨족보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명백히 생몰년이 나오는 이 정려비의 기록으로 볼 때 그 진상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권씨부인의 행적

함양군 안의면의 대표적 열부인 안동권씨 부인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안동권씨 부인이 호랑이를 제거함으로서 마을에 평화가 찾아 왔다는 내용의 '노부부의 버선밭골'이라는 제목의 전설로 전해오고 있다.



곶감과 호랑이 전설, 그리고 어리석은 머슴의 호랑이 안고 온 이야기, 스님의 은혜를 져버리고 응징 받은 호랑이 이야기등 지리산 자락이라 많은 전설이 내려온다.

심원정 골짜기 주위에 있는 밭에서 정태일의 처인 안동권씨가 일을하고 있었다.

일을 한참 하다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잘못들었거니 했는데 갈수록 더 크게 들려서 좀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호랑이 울음소리와 남자의 비명 소리였다. 놀라서 하던일을 멈추고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 가보니 자기 남편이 호랑이에게 습격을 당하고 있었다. 너무 놀란 부인이 어떨결에 들고 있던 호미를 던져 호랑이 눈을 찔러서 남편을 구했다.본 이야기는 함양군의 전설편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당시 호랑이 습격 사건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자!

내동마을 입구에는 정태일의 처 안동권씨의 열녀비가 있는데 뜨거운 사랑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 내동 뒤에 버선모양으로 생긴 버선밭골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슬하에 자녀도 없이 노부부가 단둘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이 병이 나면 아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 탕약과 병간을 하고 아내가 피로할 때에는 남편이 밥을 짓고 빨래까지 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위하였다. 이 노부부는 이 버선밭골에 곡식과 채소를 심어 자식처럼 기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일을 하였다.

한편 평화로운 이 마을에 어느 때부터인가 몽달귀신이 찾아들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곤 하였다. 무주고혼의 떠돌이 귀신인 이 몽달귀신은 일년에 한번씩 이 마을을 찾아들었는데 마을 사람을 괴롭히고 심술궂은 일을 저지르고 떠나가곤 하였는데 이번에는 금슬 좋은 노부부에게 시기심이 발동하여 해칠 궁리를 하였다. 그래서 호랑이로 둔갑하여 잡아먹어야지 하고 부부를 해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부부가 밭에 나가서 그 긴 밭고랑을 양쪽에서 매어 들어와 한 가운데서 만나기로 하고 밭을 매는데 한참 일을 하다가 아내가 남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여보 어디 있어요, 하고 불렀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는 둔덕으로 다가가 남편이 밭을 매어오는 쪽을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남편을 물어뜯어 잡아먹고 있지 않는가. 기가 막히고 통곡할 노릇이었다. 남편의 비참한 모습을 본 아내는 눈이 뒤집히고 피가 솟구쳐 올랐다. 가냘프고 연약한 여자의 몸인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남편을 살려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아무런 겁도 없이 호미로 호랑이에게 달려들었다. 사랑의 힘이었으리라.

어디서 그런 무서운 힘이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아내는 남편에게로 뛰어 내려가 호미로 호랑이의 두 눈을 빼고 사방을 찍어 상처를 입혀서 호랑이를 죽였다. 그러나 아내도 호랑이와의 사투를 벌인 끝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죽고 말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비극이었다.

한편 이러한 노부부의 버선밭골의 비극적인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살리려다 호랑이에게 죽어간 그 아내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 부부애를 기리기 위해 열녀비를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이 열녀의 용감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심술궂은 호랑이(몽달귀신)가 죽은 후 내동마을은 재앙이 사라지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평화로운 마을로 가꾸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하원리)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여성 독립운동가 권기옥, 권애라 선생 낭독극 공연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는 9월 6일 오후 3시, 6시를 비롯하여 9월 7일 오후 3시 대학로 마로니에고원 다목적홀에서 낭독극 역사가 된 여자들 –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공연했다.

주최측은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 권애라 성생과 최초 여성 비행사인 권기옥 선생을 낭독극 무대에 올렸다. 낭독극은 70여 명의 관객들이 관람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윤지현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는 낭독극 〈역사가 된 여자들 –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는 독립이라는 역사적 당면과제 앞에 당대 여성 독립운동의 놀랍도록 다양했던 입장과 방식을 배웠고, 저마다의 인식과 실천이 공존했던 포용적 시공간과 그 안의 포용적 주체로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구경 공연단장은 어두운 시대, 개인의 삶을 떼어내어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옳은 일을 하려고 나섰던 여성들. 어제를 지켜냈던 그들의 고통, 슬픔이 자양분이 된 것에 다시금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어린 권기옥 역 고유정씨(왼쪽), 어른 권기옥 역 박정순씨

어린이 권기옥 역에는 고유정씨가, 어른 권기옥 역에는 박정순씨가 각각 맡아 열연을 펼쳤다. 권애라 역에는 정경훈 씨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은평구 명예도로 '권애라로' 조성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독립운동가 권애라(權愛羅, 1897~1973)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6월 명예도로 '권애라로'를 지정하여 조성했다.

명예도로 '권애라로'는 불광역에서 독바위역까지, 불광로 37에서 131까지이며 940m, 약 1km 구간이다.

여성 독립운동가 권애라 선생은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에서 태어나 개성(開城)에서 자랐다. 3·1운동 당시 개성 지역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공훈록에는 권애라 선생의 공적이 다음과 같이 자세하다.

1919년 3월 1일 당시 호수돈여자보통학교(好壽敦女子普通學校) 부설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어윤희(漁允熙)와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날의 독립만세운동은 그의 손에 독립선언문이 전해지면서 추진되었다.

그는 이 선언서 80여 매를 호수돈여자보통학교에서 어윤희에게 넘겨주어 주요 인사에게 배부하였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운동가와 찬송가를 부르며 만세시위는 시작되었다.

이 만세시위 행렬에 억눌렸던 일반 민중도 호응하게 되자 일경이 동원되어 그를 비롯한 많은 주도 인사들이 붙잡혔다.

5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고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9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 후에도 독립운동에 관련된 일에 힘써왔는데 1920년 4월 25일~5월 27일 동안 6회에 걸쳐 수표교(水標橋) 예배당을 비롯하여 정동(貞洞) 예배당에서 '반도의 희망', '잘 살읍시다' 등의 제목으로 한국 여성의 애국사상 고취를 위한 강연을 몇 차례에 걸쳐 시도하다가 이해 7월 9일 종로(鐘路) 경찰서에 구금되었고 1922년 1월에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인민대표회의(極東人民代表會議) 한민족 여성 대표로 참가하여 당시 민족대표 여운형(呂運亨)·나용균(羅容均) 등과 함께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1929년에는 중국 소주(蘇州) 경해여숙대학(景海女塾大學)에서 수학하면서 상해(上海)를 중심으로 여성 지위 향상과 조국광복운동에 활약하였고 이후 동삼성(東三省)에서 지하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1942년 4월에는 길림성 시가둔(吉林省 施家屯) 영신농장(永新農場)에서 아들 김봉년(金峰年)과 함께 일제 관동군 특무대에 붙잡혀 1년 이상 비밀감옥에서 고문 취조를 받은 다음 장춘고등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장춘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023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바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3年 9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8.30. ~ 9.25.
총 납부자 343명 총 금액 10,850,000원
지사·지국 2곳 (이름순, 단위:원)

※권기수(안동) 30,000	권대석(서울서초) 30,000	권상호(제천) 30,000	권영도(창원) 30,000	권영환(세종) 30,000	권오철(경기부천) 30,000	권재천(창원) 30,000	권춘규(경기수원) 30,000	권혁만(예산) 30,000
※권혁주 30,000	권대성(안동 가곡리) 30,000	권석근(합천) 30,000	권영돌(안동) 30,000	권영환(청송) 30,000	권오철(대전) 30,000	권재철(영양) 30,000	권춘기(구미) 30,000	권혁모(서울구로) 30,000
검교공파 서천공종회 30,000	권대윤(서울마포) 30,000	권석범(군산) 30,000	권영동(서울도봉) 30,000	권오갑(경주) 30,000	권오철(영덕) 30,000	권재혁(서울동대문) 30,000	권칠수(대구) 30,000	권혁성(포항) 30,000
권갑경(원주) 30,000	권대인(안동) 30,000	권석재(산청) 30,000	권영문(인천) 30,000	권오갑(대구) 30,000	권오철(포항) 30,000	권재호(산청) 30,000	권칠훈(문경) 30,000	권혁수(군위) 30,000
권건식(서울금천) 30,000	권대일(횡성) 30,000	권선식(익산) 30,000	권영보(창녕) 30,000	권오갑(안동 운안동) 30,000	권오춘(경기용인) 30,000	권재희(서울노원) 30,000	권태갑(문경) 30,000	권혁수(정읍) 30,000
권경수(대구) 30,000	권덕식(경기안양) 30,000	권선옥 세무사사무소 30,000	권영봉(구미) 30,000	권오경(영양) 30,000	권오춘(충주) 30,000	권정대(대구) 30,000	권태경(밀양) 30,000	권혁우(인천) 30,000
권경진(김해) 30,000	권동각(서울성동) 30,000	권성오(대구) 30,000	권영석(합천) 30,000	권오광(고령) 30,000	권오탁(안동) 30,000	권정숙(제천) 30,000	권태경(제천 용두천로384) 30,000	권혁일(서울동작) 30,000
권경진(부산) 30,000	권동원(서산) 30,000	권성오(창원) 30,000	권영성(안동) 30,000	권오기(서울영등포) 30,000	권오필(경주) 30,000	권정식(곡성) 30,000	권태관(경기여주) 30,000	권혁정(대구) 30,000
권경훈(대구) 30,000	권동철(광양) 30,000	권세영(대전) 30,000	권영세(경주) 30,000	권오달(서울관악) 100,000	권오학(서울양천) 30,000	권정안(세종) 30,000	권태근(경기성남) 30,000	권혁중(청양) 30,000
권계술(부산) 30,000	권두찬(영덕) 30,000	권송열(고성) 30,000	권영수(구미) 30,000	권오룡(서천) 30,000	권오한(제주) 30,000	권정욱(진천) 30,000	권태근(경기수원) 30,000	권혁채(경기용인) 30,000
권광훈(청주) 30,000	권두현(경기수원) 30,000	권수명(대구) 30,000	권영수(영주) 30,000	권오만(경기광명) 30,000	권오현(구미) 30,000	권정환(상주) 30,000	권태남(안동) 30,000	권혁천(경기김포) 30,000
권구만(대구) 30,000	권득한(경기용인) 30,000	권수영(청주) 30,000	권영시(서울송파) 30,000	권오명(통영) 30,000	권오현(서울동작) 30,000	권종대(청주) 30,000	권태만(청송) 30,000	권혁철(공주) 30,000
권규홍(보은) 30,000	권만봉(경기광주) 30,000	권순남(충주) 30,000	권영식(경기용인) 30,000	권오목(안동) 30,000	권오현(음성) 30,000	권종만(경기파주) 30,000	권태문(안동) 30,000	권혁철(안동) 30,000
권근(서울중랑) 30,000	권명달(울산) 30,000	권순덕(경기김포) 30,000	권영식(대구 북구) 30,000	권오민(경기김포) 30,000	권옥재(서울강남) 30,000	권종삼(서울강서) 30,000	권태석(경주 동성로) 30,000	권혁태(영주) 30,000
권기돈(문경) 30,000	권명섭(경기양평) 30,000	권순동(대구) 30,000	권영식(대구 화랑로) 30,000	권오상(고령) 30,000	권용대(안동) 30,000	권종욱(영주) 30,000	권태순(경기안양) 30,000	권혁필(대구) 30,000
권기만(안동) 30,000	권명수(경기김포) 30,000	권순박(예천) 30,000	권영식(상주) 30,000	권오석(봉화) 30,000	권용욱(경주) 30,000	권종일(구미) 30,000	권태욱(당진) 30,000	권혁필(서울영등포) 30,000
권기문(아산) 30,000	권무열(안동) 30,000	권순배(문경) 30,000	권영식(안동 신평리) 30,000	권오선(경기양평) 30,000	권용주(경기안양) 30,000	권종현(서울도봉) 30,000	권태욱(서울성동) 30,000	권현복(경기양평) 30,000
권기범(경기수원) 30,000	권민호(산청) 30,000	권순백(세종) 30,000	권영언(경기양평) 30,000	권오선(칠곡) 30,000	권용호(경기파주) 30,000	권종훈(서울은평) 30,000	권태유(대구) 30,000	권현수(서울강북) 30,000
권기봉(안동) 30,000	권백현(안동) 30,000	권순보(경기안양) 30,000	권영완(서울강남) 30,000	권오성(경기광명) 30,000	권용호(서울중랑) 30,000	권준화(대구) 30,000	권태윤(대구 중리동) 30,000	권현호(진주) 30,000
권기석(영주) 30,000	권범순(대전) 30,000	권순봉(경주) 30,000	권영운(봉화) 30,000	권오성(장수) 30,000	권우붕(봉화) 30,000	권중기(대구 침산동) 30,000	권태일(경기안산) 30,000	권형수(경기안산) 30,000
권기섭(부산) 30,000	권병남(경기안양) 30,000	권순성(서울동대문) 30,000	권영원(경기용인) 30,000	권오수(안동 신안동) 30,000	권우석(경기평택) 30,000	권중길(서울구로) 30,000	권태학(영주) 30,000	권형태(안동) 30,000
권기순(대구 범물동) 30,000	권병섭(청송) 30,000	권순주(경기부천) 30,000	권영일(서울서대문) 30,000	권오순(영양) 30,000	권우식(산청) 30,000	권중덕(안동) 30,000	권태현(창원) 30,000	권호남(경기용인) 30,000
권기열(서울구로) 30,000	권병열(제천) 30,000	권순천(경기성남) 30,000	권영일(제천) 30,000	권오신(안동) 30,000	권우현(진주) 30,000	권중도(안동) 30,000	권태형(안동) 30,000	권호락(영천) 30,000
권기영(밀양) 30,000	권병우(경기양주) 30,000	권순택(서울종로) 30,000	권영주(서울금천) 30,000	권오신(안동) 30,000	권원상(서울성북) 30,000	권중석(서울동작) 30,000	권태화(대구) 30,000	권호용(영양) 30,000
권기완(경주) 30,000	권병인(영주) 30,000	권순표(서울관악) 30,000	권영준(상주) 30,000	권오엽(영주) 30,000	권원택(경기김포) 30,000	권중용(합천) 30,000	권태훈(진천) 30,000	권호익(서울송파) 30,000
권기용(울산) 30,000	권병진(대전) 30,000	권순형(서울강남) 30,000	권영준(서울관악) 30,000	권오영(경기부천) 30,000	권유진(밀양) 30,000	권중원(논산) 30,000	권태휴(상주) 30,000	권효택(경기양주) 30,000
권기운(안동) 30,000	권병천(경기김포) 30,000	권승주(홍천) 30,000	권영진(서울동대문) 30,000	권오영(안동) 30,000	권유현(산청) 30,000	권중원(부산) 30,000	권택도(안동) 30,000	권후식(경기화성) 30,000
권기웅(대구 달서구) 30,000	권봉기(장수) 30,000	권승택(서울노원) 30,000	권영찬(영동) 30,000	권오영(예산 산성리) 30,000	권이병(서울강서) 30,000	권지용(인천) 30,000	권택문(예천) 30,000	권흠(대구) 30,000
권기일(대구) 30,000	권부성(서울서초) 30,000	권안나(경기의정부) 30,000	권영철(서울송파) 30,000	권오영(예천) 30,000	권이섭(경기하남) 30,000	권진기(정읍) 30,000	권택성(대구) 30,000	권희달(서울동대문) 30,000
권기주(안동) 30,000	권사현(합천) 30,000	권영각(경주) 30,000	권영탁(대구) 30,000	권오용(서울송파) 30,000	권이현(익산) 30,000	권진남(이천) 30,000	권택영(경기하남) 30,000	권희중(경기성남) 30,000
권기진(예천) 30,000	권삼달(울산) 30,000	권영갑(영주) 30,000	권영탁(안동) 30,000	권오인(철원) 30,000	권일웅(대구) 30,000	권진택(경주 동천동) 30,000	권택전(경주) 30,000	목사공종중 30,000
권기철(경주) 30,000	권삼수(경주) 30,000	권영국(대구) 30,000	권영태(김해) 30,000	권오정(서울마포) 30,000	권장환(경주) 30,000	권진혁(제천) 30,000	권택종(서울성동)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기하(안동) 30,000	권상목(경기과천) 30,000	권영국(서울송파) 30,000	권영표(영주) 30,000	권오주(안동 용상동) 30,000	권재규(예천) 30,000	권진현(대구) 30,000	권택주(청주) 30,000	안동종친회 170,000
권기현(산청) 30,000	권상안(창녕) 30,000	권영근(양평 양근리) 30,000	권영하(밀양) 30,000	권오준(포항) 30,000	권재동(안동) 30,000	권찬기(칠곡) 30,000	권택호(안동) 30,000	삼척종친회 320,000
권기현(전주) 30,000	권상용(목포) 30,000	권영기(경기하남) 30,000	권영호(대구 서구) 30,000	권오중(경주) 30,000	권재목(부산) 30,000	권창수(천안) 30,000	권풍인(문경) 30,000	납부자 정정 명단
권기형(대구 중구) 30,000	권상진(경주) 30,000	권영남(봉화) 30,000	권영호(부산) 30,000	권오진(홍성) 30,000	권재시(산청) 30,000	권창용(경기시흥) 30,000	권헌옥(대구) 30,000	※ 9月호(정정)
권기호(안동 경동로) 30,000	권상태(부산) 30,000	권영달(서울강남) 30,000	권영호(상주) 30,000	권오찬(경주) 30,000	권재안(광주) 30,000	권창원(경기용인) 30,000	권헌정(봉화) 30,000	권오길(경주서부동)→권오길(경주용강동)
권대경(안동) 30,000	권상학(경주 동천동) 30,000	권영대(경기고양) 30,000	권영호(안동) 30,000	권오찬(서울강남) 30,000	권재용(통영) 30,000	권창중(제천) 30,000	권혁개(포항) 30,000	※ 7月호(정정)
권대규(전주) 30,000	권상학(서울동대문) 30,000	권영도(영천) 30,000	권영환(서울은평 불광로) 30,000	권오창(서울종로) 30,000	권재원(대구) 30,000	권철진(창원) 30,000	권혁광(경주) 30,000	권동옥(광양)→권동옥(경기부천)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